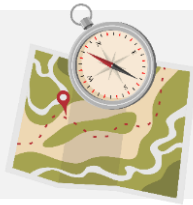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세안 권역



한 달의 완벽한 워케이션, 베트남 호찌민

이다희

호주 멜버른 톨루마린 공항에서 출발해 베트남 호찌민 편셋넛(Tân Sơn Nhất) 공항에 도착했다. 남편과 함께 무작정 해외 살이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베트남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남편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급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래는 호주에서 바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자, 했다. 그런데 멜버른 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비자가 나올 것 같지 않았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베트남 한 달 살기를 결정했다.

남편은 그전까지 베트남에 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대학생 시절, 저 위의 하노이부터 호찌민까지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오며 꽤 오래 베트남을 둘러본 적이 있다. 그 기억이 좋아서인지 태국, 라오스, 일본 등 다양한 한 달 살기 후보들 중 베트남에 더 마음이 갔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베트남 한 달 살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놔야 하는 것은 비자 신청이다. 베트남은 보름 이상 체류할 경우 'E-Visa'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비자가 나오는 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니 최소 입국 일주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게으른 우리는 느장 부리다가

입국 당일 아침에 비자가 나와 끝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

든든한 한 달 체류 비자를 쥐고 입국 심사대에 섰다. 입국 심사가 철저해 대기 줄이 항상 길다는 베트남 이라기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출국 항공권, E-Visa, 머물 숙소 예약내역까지 인쇄해서 꼭 쥐고 갔는데 비자만 확인하시고는 쉽게 보내주셨다. 아무래도 어딜 가든 부드럽게 통과되는 한국 여권 덕분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옆 심사대에서는 통과가 안 되어 시무룩하게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으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공항에서 바로 그랩(Grab) 택시를 불러 호찌민 중심지인 1군으로 향했다. 한 달 숙소는 9군에 잡아놨지만, 공항에서 바로 9군으로 가기에는 멀지 않을까 싶어 첫날은 시티에서 머물기로 했다. 호찌민 일본 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 느낌 인테리어의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바로 앞 카페로 갔다. 0이 많이 붙는 베트남 '동'이 적힌 메뉴판을 보니 웬지 엄청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도시의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수많은 오토바이와 단위가 커 보이는 동이 바로 '아, 내가 베트남에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케 하니 말이다.

카페에서는 남편과 달달한 베트남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한 달에 대해 얘기했다. 베트남에서 한 달 가량 지내면서 우리는 대부분 일과 공부를 해야 했다. 나는 호주에서 하던 일을 온라인으로 계속 해야 했고, 남편은 곧 입학할 전공을 미리 공부해놔야 했기 때문이다. 굳이 1군이 아닌 9군에 숙소를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번쩍이는 변화가로부터 먼 곳에 고립되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가끔은 1군으로 놀러 와 베트남 마사지와 관광을 즐길 계획이었다. 이 첫 날도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지만 앓았더라면 한껏 즐겼을 것이다.

다음 날, 숙소에서 오전 업무를 끝내고 9군으로 향했다. 그랩으로 50분이나 가야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리 비싸지도,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우리의 숙소는 9군의 아파트였는데,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세대수가 많은 고층 아파트임에도 숙박비가 1일 2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했고, 단지 내 일하고 공부하기 좋은 카페가 족히 8곳은 있었다. 큰 수영장과 심지어 김밥을 파는 제대로 된 한식당도 있는 곳.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하며 놀며 쉬기에 최적인 장소였다.

1층에서 에어비앤비(Airbnb) 호스트를 만났다. 우리는 베트남어를 못하고 호스트 분은 영어를 못 하였던 터라 열심히 번역기를 돌려 침묵의 대화를 한 후, 짐을 풀었다. 집 인테리어와 가구는 사진보다는

상태가 별로였으나, 신축 아파트이니만큼 집 자체는 깔끔해서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여기서 한 달을

보내겠구나. 1년 계획이었던 호주 생활의 집에서 여름 옷가지와 세면도구 등만 꺼내어 곳곳에 배치했다. 그리고 바로 단지를 둘러보러 나갔다. 호찌민 9군은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 최근 우리 숙소를 포함한 메이저 건설사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기 있는 주거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이라고 한다. 외국인인 거의 없고, 베트남 현지인들의 진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더 좋았다.

산책하듯 휘휘 둘러본 아파트 단지는 무척 깔끔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큰 수영장 두 개와 제법 많았던 한국 편의점 GS25와 Family Mart였다. 이 단지 안에 한국 편의점이 적어도 5개는 있다니. 확실히 베트남에서는 한류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듯했다. 카페에만 가도 대부분 K-pop이 나올 정도이니. 둘러보다 시원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져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이 외곽 지역에서 딱 봐도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 직원들은 흠칫 놀라곤 하지만, 이내 친절함으로 커피를 내려 주신다. 베트남도 물가가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렴하긴 했다. 커피 한 잔에 1,200원 정도밖에 안 했으니. 물론 우리가 주로 갔던 동네의 일반 카페가 아닌 'Highland'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것보다 비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렴하다. 참고로 베트남 커피는 일반적으로 단맛이 나기에 아메리카노와 같은 맛을 원한다면 주문 시 '노 슈거'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호찌민 한 달 살이, 우리의 하루 패턴은 이랬다.

오전에 동네 카페를 가서 나는 일을 하고 남편은 공부를 하며 나를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다 점심에는 느릿느릿 집에 돌아가서 점심을 먹는다. 그랩 푸드로 양껏 주문해도 웬만해서는 8천 원도 채 안 나왔기에 끼니는 주로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오후에는 카페를 다시 가거나 집에서 쉬엄쉬엄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단지 내 산책을 하거나 수영을 했다.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어쩐지 또 허기가 저서 단지 내 한식당에서 김밥과 제육볶음 등을 포장해 와 드라마를 보며 먹기도 했다. 대부분이 저렴했기에 매일 시켜 먹고, 카페를 가도 큰 부담이 없었다. 그야말로 최고의 ‘워케이션(Work+Vacation, 일과 쉼의 합성어)’ 환경이었다.

그러다 일상이 조금 심심하다 느낄 땐 1군으로 나갔다. 그랩을 타고 가도 되지만, 단지 내 1군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 우린 대부분 버스를 이용했다. 다만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풍경을 좋아하는 나는 버스 안에서 노래를 들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즐겼던 듯하다.

1군에서는 가는 날마다 마사지를 받았다. ‘베트남 여행을 가면 1일 1마사지는 기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마사지는 필수 코스인데, 우리 또한 어디서 이 가격에 전신마사지를 받아보겠냐며 열심히 받았더라. 일반 전신 마사지, 가벼운 발 마사지, 부드러운 오일 마사지, 스크럽 마사지와 한국식 찜질방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까지. 호찌민의 유명한 마사지샵은 다 가본 듯하다.

그렇게 1군 방문 목적의 1순위인 마사지를 받고 나면 잘 알려진 레스토랑을 갔다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선택지가 많이 없는 9군의 그랩 푸드와는 달리 역시 1군은 먹을 것의 천국이어서 예산을 초과해 한 끼를 먹는 것도 예사였다.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9군에서와는 달리 1군에만 오면 어쩐지 우리 둘 다 들뜨게 되어 무리해서 즐기다 밤늦게 귀가하기도 했다.

한 번은 네일샵에서 기분을 낸 뒤 근처에 이자카야에서 한 잔 하기로 했었는데, 하필 그날 비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네일을 받고 나오니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집에 갈까 말까 잠깐 고민했지만, 이왕 다 젖은 김에 술까지 마시고 가기로 했다. 흠뻑 젖은 채로 이자카야에 들어가니 직원들은 역시 흠칫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었다. 철판에서 바로 구워주는 구운 주먹밥과 오코노미야키를 먹었던 그곳, 축축한 옷을 계속 말리며 마셨던 술은 황홀하기 그지없었다. 작아서 더 따뜻하고 아늑했던, 작은 술집에 대한 어떤 나의 로망과 비슷했던 가게 모양새에 기분이 잔뜩 좋아져서 남편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 “여기 정말 좋다. 집에 안 가길 잘했어. 나 호찌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다음에 또 오자.” 현지식이 아니라 조금 비쌌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해 더욱 만족했던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비를 맞으며 9군으로 돌아갔다. 그 비 오는 날의 1군은 호찌민에서의 한 달 중 가장 로맨틱한 날로, 지금도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다.

그렇게 대부분은 호찌민 9군에서 일하며 쉬고, 가끔은 1군의 화려함을 즐기며 호찌민에서의 한 달을 보냈다.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숙소를 9군으로 잡은 것인데, 중심지와 멀어서 한 달을 살기에는 오히려 좋은 점이 많았다. 외곽 지역이라 물가가 조금씩은 더 저렴한 것, 단지 내에서도 물론, 아파트를 조금만 벗어나도 어느 정도 꾸며진 모습이 아닌 완전한 현지인의 삶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한국 편의점이나 맛있는 커피가 가득한 카페가 많아서 생활에 불편함은 거의 없다는 점. 저렴한 숙박비로 큰 수영장을 매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1군에 있었다면 매일 같이 마사지의 유혹에 빠져 다 탕진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자금을 지켜준 것도 어쩌면 9군 덕분이겠다.

그리 크지 않은 비용으로 완벽한 워케이션을 보낸 호찌민에서의 한 달. 역시 베트남은 일과 삶과 마사지와 수영장, 몇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완벽한 곳이었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